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년 8월 31일(월) 16:00
배포일시	2026년 8월 31일(월)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담당자	정영호 KDI 대외협력실장 (044-550-4655, jyoung@kdi.re.kr)

KDI-국민경제자문회의, 'AI 시대,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정책 포럼 개최 결과

- 일 시: 8월 31일(월) 14:00 ~ 16:00
- 장 소: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 주 최: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개발연구원(KDI)

□ KDI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8월 31일(월) 서울 은행회관에서 'AI 시대,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

○ 이번 포럼은 AI 시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기술혁신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 김세직 KDI 원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장기성장을 하락과 모방형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국가의 성장동력을 모방형 인적자본에서 창조형 인적자본으로 전환하고 'HI(휴먼 아이디어) 주도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
 - 국민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재산권과 보상 체계를 부여하는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도입하고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HI 교육을 강화해,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고 나아가 장기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한다고 강조
- 류근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기존의 추격형·투입형 성장에서 벗어나, 인재·AI 수요·데이터·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산성 중심의 성장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
 -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s, S)형 평생교육으로 교육체계를 전환하고 AI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개인·가구·기업·지역 데이터를 연계해 증거 기반의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
- 패널 토론에서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기조 발제자 2인과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장, 김재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이윤수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AI 시대 한국의 제조업 20 전략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보완 과제, 아이디어·창의성의 경제성장 연결 방안 및 스타트업 AI 서비스의 성장 전략 등 AI 시대의 진짜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

❖ 붙임 1. 세부 일정

❖ 붙임 2. 발제 요약문

❖ 별 첨. 포럼 현장 사진(8월 31일(월) 15:30 배포)

❖ 붙임 1.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4:00 ~ 14:05	개회 선언
14:05 ~ 14:55	기조 발제 발 제 ① AI 시대 H(휴먼 아이디어) 주도 진짜성장 전략 김 세 직 KDI 원장 발 제 ② AI 시대 성장잠재력 제고 전략 류 근 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15:00 ~ 16:00	패널 토론 좌 장 김 성 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토 론 권 석 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김 재 준 국민대학교 경상대학 명예교수 이 윤 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 세 직 KDI 원장 류 근 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16:00 ~ 16:05	폐회 선언

[기조 발제 ①] AI 시대 HI(휴먼 아이디어) 주도 진짜성장 전략

김세직 KDI 원장

- [문제 인식]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0%대 성장률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방식으로는 성장률 추락을 막는 데 한계, AI의 발전으로 오히려 새로운 기술의 출발점인 휴먼 아이디어(HI)의 가치가 확대
 - 경제성장의 핵심은 교육 등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나, 그간 모방형 인적자본 육성에 치중해 왔으며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을 모방하는 방식은 한계에 도달
 - 막대한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혁신 성과와 성장률 개선이 미흡한 것은 기술 혁신의 핵심 투입 요소인 HI에 대한 투자와 보상 체계가 부족했기 때문
- [정책 방향] 국가의 성장동력을 모방형 인적자본에서 창조형 인적자본으로 전환하고 기술 주도 성장을 HI 주도 성장으로 재정립하는 한편, 아이디어 창출·보호·보상이 선순환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
 -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도입해 국민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소유권·재산권을 부여, 정부가 아이디어를 유통·경매한 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원작자에게 환원
 - KDI에 공공부문 정책 아이디어 등록제를 우선 도입, 정책 시행으로 발생한 예산 절감 및 사회적 편익 등을 평가하고 원작자에게 보상하는 시스템을 시도
 - 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문제해결력과 발명형 사고를 키우는 ‘HI 교육’을 강화해 창의적 인적자본을 축적
 - 대학 입시 및 교육과정에 창의성 평가와 창조형 수업 비중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이 업무 분야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 [기대 효과] 국민 다수가 아이디어 창출에 참여하는 대중 기반 혁신 체계가 조성되어 혁신기업과 신산업의 출현을 촉진, 나아가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성장을 반등에 기여
 - 이를 위해 HI에 대한 교육·보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아이디어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기조 발제 ②]

AI 시대 성장잠재력 제고 전략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AI 시대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기존의 추격형·투입형 성장에서 벗어나 인재·AI 수요·데이터·지역을 연결하는 생산성 중심 성장 체제로 전환
 - AI 확산에 따른 중간숙련 일자리 감소와 초고숙련 인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성장 정책과 재교육·전환 훈련·노동이동 지원을 함께 설계
- 교육체계는 평균적 인재의 대량 양성에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평생 재학습 중심으로 전환
 - 획일적 평균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융합 역량 문제정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은 지식 전달 기관에서 학생별 학습경로를 설계하는 'Gallery - Curator'형 교육기관으로 전환
 - AI로 인적자본의 감가상각과 직무 변화가 빨라지는 만큼 역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재교육을 통해 회복시키는 (s, S)형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을 평생 재학습 플랫폼으로 개편
- AI 기술 공급뿐 아니라 기업의 활용과 수요를 확대하고, 교육·산업·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AI 확산 체계를 구축
 - 서울대 ABS·ABC와 같이 청년 AI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최고경영자의 AI 활용 역량을 함께 높이는 모델을 지방대학·지역기업으로 확산해 청년 - 기업, 교육 - 산업, 수도권 - 지역을 연결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
-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개인·가구·기업·지역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하여 증거기반 정책의 국가 인프라를 구축
 - 인구·가구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지역·공간데이터를 연계해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인구이동·기업입지·고용·재정지출 등을 함께 분석하여 복지·조세·산업정책뿐 아니라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 대응에도 활용
- 궁극적으로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인재·수요·데이터·지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성장 정책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